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이기영**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경험을 질적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그려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양적 연구보다는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풍부하고 심도 있는 묘사가 더 요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동원한 질적 자료들은 10명의 탈북청소년(13세-21세 사이) 당사자들과의 면담기록, 5명의 탈북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자와의 심층전화면담,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자원봉사자 기록, 선행연구의 질적 자료들이었다.

이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의 전형인 '개방적 코딩-지속적 비교분석-중심주제형성'(Glaser & Strauss, 1967)의 과정을 활용하였는데 자료들 속에서 주요 코드들을 선별하여 그 코드들을 주요 중심주제아래 연결해 보면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의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했다. 이들의 적응의 스토리는 학업부진과 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형성, 진학 및 진로설정에서의 문제점,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형성의 어려움, 부모와의 관계, 기타 적응스트레스의 원인 등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묘사되었다.

질적 분석의 결과로 드러난 탈북청소년의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책으로서 탈북청소년들의 학습부진을 극복하게 할 장단기적 정책적 지원,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 및 상담교사의 역할 강화,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에서의 탈북청소년 적응지원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 하위문화 교육프로그램, 멘

* 이 연구는 2001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연구를 위해 탈북청소년 면접에 참여하고 기록에 도움을 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생 박지영양에게 감사한다.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토링, 홈스테이 등), 탈북 청소년의 진학 및 진로를 지도할 교육보호담당자의 선정과 교육보호담당자와 기타 인력과의 연계확보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탈북자, 청소년, 사회적응, 질적 조사, 사회복지, 이주민

I. 서 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탈북자¹⁾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슈가 아닐 만큼 그 동안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이들의 성공적 적응 및 정착을 위한 효과적 지원은 계속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994년 이후 급격하게 탈북자의 남한입국이 증가하면서²⁾ 정부와 민간은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부분 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욕구는 성별, 연령별,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특화되고 세분된 지원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지원활동의 결과가 예상만큼 만족할 수준의 것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사회적응문제가 매우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관한

1) 탈북자의 공식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동법령, 제 2조 1항).

2) 국정원과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한해 20~50명 정도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1999년에 148여명, 2000년에 약 312여명, 2001년에는 58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추정으로 볼 때 적어도 2005년경까지 해마다 2배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기록서³⁾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위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입국 후 초기동안은 수업내용의 반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급우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아 곁들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 남한청소년의 소비규모를 맞추기 위해 용돈 문제로 혹은 복장문제로 부모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남한청소년의 하위문화에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어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에 온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적응과정상의 문제, 즉 부적응의 행태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심화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만큼 정부의 대응책은 미비하거나 단편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적응의 실태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기초적이지만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실증조사연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다.

3) 2000년, 2001년 두해 동안의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탈북동포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였음.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는 기존의 탈북자 관련 연구논문, 외국의 이주민 혹은 난민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문제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논문, 남북한 청소년의 비교연구논문,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청소년 대상 자원봉사기록서 등의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연구로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in-depth interview)와 탈북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양적 자료 분석 대신에 질적 자료의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형성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어서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응과정의 내용을 조사대상의 수는 적더라도 세밀하게 그려보는 목적으로는 질적 조사 방법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였다.

질적 조사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된 탈북청소년들은 1994년 이후 국내 입국자로서 2000년 12월 현재까지 정부 교육시설을 퇴소한 탈북자로서 13세 이상(대략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에 해당)부터 21세까지의 연령(대략적으로 대학교 재학 1,2학년까지 연령에 해당)에 해당하는 자⁴⁾ 가운데서 임의로 표집된 10여명이었다. 조사대상과는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조사참가의사를 타진한 후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하여 길게는 1-2시간 동안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2001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연구자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대학원생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사)북한인권시민연합사무실과 기타 조용한 면접장소등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뒤 녹음되었다.

4) 조사대상을 13세에서 21세 사이로 규정한 배경은 본 글의 '탈북청소년의 연령적 구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의 대상을 학령기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학교이외의 남한사회를 심층적으로 고민하지 못했거나 경험이 일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조사가 국한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될 수 있는바 추후 조사연구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의 연령대까지 더욱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연맹'에 가입되어있는 30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면접의 형식은 조사대상자가 지난 한 주간 혹은 한달 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연구자가 즉흥적인 질문을 추가하고 여기에 조사대상자의 추가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즉흥적으로 추가한 질문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남한주민으로서의 정체감평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감, 가족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 탈북자 자신의 사회 적응 정도와 내용, 중국 등 제 3국 체류 시 경험, 학업수준, 학교생활과 교사 및 교우관계, 남한 청소년집단에 대한 동일시정도 등이었다.

자원봉사자 전화면접조사는 6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일반민간기관과 종교단체들에서 청소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약 40-6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대개 탈북청소년과 접촉이 많고 이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리라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평균 약 30분씩 전화면접되었으며 주요 전화면담 내용은 자원봉사자 자신과 봉사대상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정보, 탈북청소년의 제 3국 체류 시 특별한 경험, 탈북청소년의 현재학업상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 사회생활, 가족간의 관계, 심리적 문제 : 우울, 불안, 긴장, 정체감 상실, 정체감 혼동, 대인관계, 자신감, 열등감, 정신장애, 비행이나 범죄경험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탈북청소년 연령적 구분

청소년의 연령은 시대, 학자, 관련 법규 및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13,4세에서 18세 정도에 이르는 연령대를 청소년기라고 규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탈북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는 문제가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탈북의 과정과 외국체류 시기동안 적절한 영양공급과 제도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경험한다(좋은벗들, 1999a; 1999b). 또한 생물학적 연령이 18세가 넘는다 하더라도 입국이후 이들은 중학 과정이나 고등학교과정에서 학업을 수행하면서 자신보다 2-3세 낮은 연령의 남한청소년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체적 발육, 남한청소년문화의 동일시의 기준, 지적·정서적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의 연령대 상한선인 18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입학 전에 있는 13세에서 21세 사이의 사람들을 탈북청소년 집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탈북청소년 연구에 필요한 연령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임의적 판단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이 이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1) 탈북자와 사회적응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정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바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 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김귀옥, 2000:327)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개념의 적응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원용되고 세부화되어 그 개념이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정의한 ‘적응’의 개념을 위주로 논의한다.

정유선(1998)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윤여상(1994)은 ‘주변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으로 정의되는 심리학적 개념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으로부터의 기대, 요구 등에 개인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정의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혜정(1995)은 ‘한 사회의 성

원인 인간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윤인진(2000)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적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독고순(1999)은 적응의 개념을 ‘행동의 사회적 적응성(social applicability of behavior)’과 ‘정신적 준거틀의 명료성’으로 구분하는 그로브와 토비온(Grove & Torbiorn, 1985)의 견해를 탈북자 적응의 분석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응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이해는 자신의 행동에 유용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독고순, 1999: 28).

탈북자의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소래(1996)에 따르면, 문화적응이란 “단순히 이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 [탈북자의] 적응과 변화, 수정, 조절,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자신을 남한의 신념체계와 생활 방식, 사회적 관계망, 습관적 형태에 통합시키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소래, 1996: 15).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약화현상으로서 불안, 우울, 소외감, 정체감혼란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지적되기도 한다(Williams & Berry, 1991).

탈북자의 정신건강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전우택(1997)에 따르면,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은 크게 정치·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되고 탈북자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윤인진(2000:30)은 탈북자 사회적응을 물질적 적응과 정신적(혹은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이 두 영역의 조합으로 네 가지의 상이한 적응유형-통합형, 고립형, (문화적)동화, 주변화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물질적 혹은 경제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신적 적응이란 “남한사회의 정식구성원(full member)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의 개념을 토대로 연구자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의 제반 사회 환경에 대해 보다 명

확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영위하며, 심리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만족감은 탈북자들이 느끼는 남한생활에서의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소속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기영, 2001).

2)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탈북자 일반의 사회적응의 개념을 구체화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더 세부적인 인구학적 집단으로서의 탈북청소년에 특화 된 사회적응의 개념정의를 회박하다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인 탈북자의 경우, 남한사회적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이 경제적 부분의 적응과 일반 사회 문화적 차원의 적응이 될 수 있다면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는 학업부분에서의 적응과 일반 사회 문화적 적응,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성인의 경우 경제적 적응의 차원이 매우 주요한 제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적소(niche)의 구실을 한다면,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는 바로 학업성취를 위주로 하는 학교를 위시한 학업의 장에서 남한의 학교라는 사회화기관에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적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 사회 문화적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한 청소년 하위문화에 적응하고 남한의 청소년들과 무리 없이 섞이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자 청소년의 사회적응에서 관련되는 중요한 차원은 이들이 소속된 가족이라는 일차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의 지속이다. 말하자면, 독신으로 온 청소년 탈북자를 제외하고 많은 청소년 탈북자의 경우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적응할

5)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부분에서 본문에서 밝힌 두 가지 영역(학업의 장에서의 적응과 일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제한은 탈북 청소년의 경제적 적응문제 또한 중요히 다루어야 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은 성인탈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경제문제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부분 독립적 경제주체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실제로 탈북 청소년과의 인터뷰결과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의 경제문제영역에는 초점이 모아지지 않았다.

터인데, 이러한 경우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가족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탈북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탈북청소년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1998년의 박선경의 연구, 2000년의 이기영의 연구, 그리고 같은 해 장창호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고 탈북청소년에 관한 문헌연구로는 전우택(2000)의 연구가 있다.

이민과 난민 청소년에 관한 문헌연구에 집중한 전우택(2000)은 청소년들의 정착지 적응경험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들을 연구한 논문들을 소개하면서 탈북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다. 그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이들이 ‘이중문화적 상태’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생활을 동시에 인정하고 각 사회의 가치와 특징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이주 후 가족관계를 원만히 이루어가기 위해 가족간의 적응속도를 미리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여 가족간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우택의 연구는 다양한 선행문헌들을 소개하여 이주민 청소년적응의 중요개념을 풍부히 소개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탈북청소년의 적응 혹은 부적응 상황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탈북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조사연구로 보여지는 박선경(1998)의 논문은 탈북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적응, 교우와의 적응, 학습활동적응, 자기통제에 관련한 적응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적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사에 대한 예의는 의무적인 경향으로 나타났고, 교사와는 그리 친밀하지 않은 관계로서, 그리고 교사의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자신의 개방성은 가장 힘든 부분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교우와의 관계를 살

펴보면, 탈북청소년 자신이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이 보이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는 낮았으며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음), 모든 탈북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학급활동측면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 번째 하위영역인 학습에 대한 적응에서는 대부분 수업이 힘들고 재미없어서 수업시간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고된다. 학습과제의 해결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 자기통제영역에서는 경쟁에 실패했을 때의 정서적인 반응과 수업시간의 행동통제측면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을 못하는 등 자기통제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영(2000)은 정부의 사회적응 교육시설내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욕구를 밝히려 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국내 입국한 탈북자 아동과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생활을 하기 전부터⁶⁾ 대체로 남한사회 청소년문화에 민감하며, 남한청소년 문화 속에 편입되려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인 것을 보고하고 있다. 조사시점 당시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서태지 컴백'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고,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노래와 춤을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의 탈북청소년 관련 조사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였던 장창호(2000)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도 약 6명의 13세 이상 탈북청소년을 면접 조사하여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 문화적 적응을 살펴려 했다. 먼저 심리적 적응부분에서는 외로움, 불안과 걱정, 소외감 및 소속감, 자신감 및 자부심, 자아존중감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학습능력, 친구, 교사와의 관계), 일반적 대인관계, 가족과의 문제(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 내 가족과의 상호작용), 언어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 이러한 대부분의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은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요약해보면, 박선경의 연구는 탈북청소년에 관한 선행적인 결과를 제시

6) 탈북자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 2-3개월간 정부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세부적인 고찰을 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응영역을 학교라는 장(場)에 제한시키고 있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을 포괄적으로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기영의 연구는 탈북자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응교육시설내의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의 목적 때문에 시설내의 탈북청소년의 욕구에 치우쳐 이 역시 포괄적이고 풍부한 연구자료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면접조사의 내용이 탈북청소년 집단 좌담회식으로 이루어져 개별적 면접조사에서 가능한 적응욕구의 세부적인 정부수집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장창호의 연구는 조사의 과정과 질적자료를 위한 분석의 구조는 비교적 체계화되었으나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상황에 대한 묘사가 연구자의 사전 구조화에 의해 상당히 여과된 느낌을 주고 있어 조사현장에 대한 생생하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기 어렵다.

3. 외국의 청소년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적응

탈북자 청소년들의 경험과 비교되는 차원에서 난민(refugees)과 이주민(international migrants)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문제를 다룬 외국의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은 탈북자의 경우에 눈여겨 보아야 할 이슈나 변수들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외국의 난민과 이주민개인의 사회적응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청소년집단에 한정하여 사회적응을 다룬 연구(Nguyen, 1982; Lee, 1988; Almqvist and Brandell-Forsberg, 1995; Delores, 1997; Eisikovits, 2000)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주(migration 혹은 relocating)로 인하여 새로운 정착지에서 경험하는 급격한 전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학자와 실무자들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난민이주자(refugee immigrants) 청소년은 정착지의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은 적응의 문제와 정신건강에서의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의 동남아 난민들을 가족적 측면에서 연구해온 헤인스와 그의 동료들은(Haines, Rutherford, and Thomas, 1981:317) 적응과정에서의 난

민 가족은 세대간의 분리를 지적하고 있다. 즉, 세대간의 분리란 부모와 함께 이주한 청소년 자녀들이 정착국에서 그들의 부모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동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동남아 난민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Lee, 1988)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의 경우 다른 가족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착국에서 자녀들이 독립하기까지 부모의 영향아래 놓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초기 적응기에서의 그 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전환과 세대간의 갈등을 동시에 겪는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Lee, 1988)는 청소년을 둔 난민가족의 스트레스의 원천을 부모-자녀사이의 세대간의 갈등과,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로 발생하는 가족 스트레스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부모와 자녀사이의 가치와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전통적 동남아의 유교적 가치관과 서양의 개인적이고 독립적 삶을 강조하는 가치관과의 갈등을 파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의 세대간 갈등은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이성친구의 사귀이나 결혼상대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시 표면화되며 또한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적응에 불리함으로서,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역할전도로 인한 세대간 갈등도 야기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성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동일시의 대상이나 인생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동정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세대간 역할의 전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감정적 다툼이나 적대감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가족내의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Lee, 1988: 174-175).

이주(relocating)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행태를 연구한 골드버그(Goldberg, 1980)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주라는 경험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의 자긍심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 가족구성원 중에서 자녀가 대개 정착지의 주류적 문화에 빠르고 많이 노출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부모를 능가하게 될 때 가족관계는 긴장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이고 또한 존경을 받기 원하

는 부모의 권위에 대단히 치명적인 역할전도현상을 초래한다 (이기영·성향숙, 2001에서 재인용). 동남아 난민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온 Nguyen(1982)도 이러한 역할전도와 가족내의 새로운 권력균형의 형성은 가족 내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남편의 학대, 부모의 좌절, 그리고 과음과 같은 행태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p.32).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국내 탈북청소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그리고 외국의 난민과 이주민 청소년들이 보이는 부적응, 정체감의 혼란,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해체는 탈북자 청소년의 연구 분야에 중요한 변수들과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형성에 참고할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요한 개념 및 변수, 분석 틀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노력했다. 다만 선행연구의 내용으로부터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의 영역구분을 참고하였고 이들로부터의 실제 질적자료(특히, 국내 선행연구)들을 본 연구의 조사결과 해석과정에서의 타당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교자료로 삼아 활용하였다.

4. 국내거주 탈북청소년의 규모

국내 탈북자 숫자의 통계에서 연령별 구분에 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공표 되지 않고 있어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2001년 5월 3일 현재 1625명으로 집계된 탈북자 총 규모에서 청소년 탈북자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정부의 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의 교육기수별 통계를 활용해보면, 1999년 7월 하나원 개원부터 조사시점인 2001년 9월 현재 16기수의 교육생 중 20세미만의 사람들은 168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약 200여명 정도의 아동 및 청소년 탈북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원 개원시 교육생 제 1기부터 2000년 말경의 교육생 제 10기까지 하나원을 거쳐

간 탈북자 중 10대 청소년이 49명, 10대미만의 아동이 2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후 11기(2000년 말)부터 2001년 9월 현재(제 16기)까지의 탈북교육생 중 13세 이상 20세 미만이 50명이고, 12세미만의 아동이 4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록 이것이 1999년 중순이후의 집계이기 때문에 94년 이후부터 99년 중순까지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수를 합해야 할 것이지만 과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연소자 탈북자가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III. 질적 자료의 분석방법

1. 분석방법과 순서

질적 조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사대상자의 경험과 인식세계를 여과 없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ubin & Babbie, 1997; Padgett, 1998). 그러므로 심층면접의 기록과 같은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념에 의지해서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을 피하는 것이다 (Padgett, 1998).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탈북자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와 외국의 이주민·난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관련 선행 연구 시 제시된 주요 주제(themes), 개념, 변수들을 참조하고는 있지만 이 연구는 선행연구내용이 제시한 개념적 틀로 자유로와 지기를 노력했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이 연구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주요한 남한사회적응의 영역을 학교, 학원 등의 학습의 장(場)에서의 적응 행태, 남한의 청소년과 어울리는 상황에서의 적응 행태, 가족내에서의 관계 행태, 남한사회제도일반에 대한 적응 행태, 그리고 자신의 심리 정서적 상황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영역 속에서의 중요한 주제(themes)와 세부적인 개념 혹은 변수들, 그리고 그것들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려 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의 전형인 ‘개방적 코딩(open coding)-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중심주제형성(themes)’의 과정(Glaser &

Strauss, 1967)을 활용하였는데 세부적인 질적 자료 분석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① 심층면접내용 기록과 자원봉사자 전화면접내용 기록서 만들기.
- ② 면접기록(혹은 녹취물)에 대한 개방적 코딩시작 : 기록서와 녹취물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과 잠재적인 주제가 될만한 것을 기록 및 녹취물 여백에 써놓음으로서 코드화함.
- ③ 이러한 개방적 코딩 작업 시 지속적 비교분석을 함 : 잠재적 중심주제가 코딩과정에 나타나면(귀납적 탐구) 이전에 코딩되었던 기록과 녹취의 부분을 이 중심주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코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금 재검토한다(연역적 탐구). 이러한 귀납적 과정과 연역적 과정을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되풀이한다.
- ④ 중심주제의 형성 : 코딩과정에서 나타난 코드 또는 범주들간의 관계를 탐색. 이 중심주제 들은 탈북청소년들의 부적응 경험을 유형화하는 기본단위가 될 것이고, 이 주제를 둘러싼 세부적인 코드(작은 범주)들은 그 경험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 ⑤ 중심주제 해석 후 문장화함 : 전 단계까지 수집 분석된 중심주제(큰 범주)들을 축으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경험을 유형화하기 위한 최종서술을 시도함.
- ⑥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인, 제고하기 위한 작업시행 :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에 의한 전반적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 자료출처의 다양화, 동료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으로부터의 검토 등을 통하여 연구자의 질적 분석 결과를 신빙성 있게 함.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출처로서 당사자에 대한 질적 면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와의 전화면접자료, 기존의 자원봉사자(청소년대상의 학습지도자원봉사) 가정방문기록서, 그리고 기존의 질적 면접 문헌(박선경, 1998; 한국여성개발원, 2000; 이기영, 2000; 장창호, 2000) 등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여 대조,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탈북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 ⑦ 검토 후 조사 및 분석결과를 최종화함.

2. 질적 자료의 소개

1) 탈북청소년 면접기록서(총 10명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간략히 소개된 탈북청소년 10명과의 면접기록을 가장 주요한 질적자료로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탈북청소년 A : 여 18 검정고시학원, 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B : 여 18 검정고시학원, 중국어 학원,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C : 남 19세 고등학교 1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D : 남 16세 중학교 1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E : 남 16세, 검정고시학원, 2001년 2월 초등학교 졸업,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F : 남 20세, 북한에서 고 2마침. 현재 진학준비, 독신거주

탈북청소년 G : 남 15세, 초등학교 6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H : 여 15세, 중학교 1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탈북청소년 I & J(2명 동시 면접) : 두 명 모두 13세, 초등학교 3학년
재학, 부모와 함께 거주

2) 탈북청소년 대상 자원봉사자 전화 면접기록서

조사에 응답한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한 탈북청소년들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탈북청소년 K : 13세 여, 중학교 재학 중, 부모와 함께 거주
(형제 자매 없음)

탈북청소년 L : 13세 여, 초등학교 재학 중, 모와 함께 거주
(남동생 있음, 부와 입국했으나 별거함)

탈북청소년 M : 15세 여, 중학교 재학 중, 부와 함께 거주(형제 자매 없음)

탈북청소년 N : 21세 남, 독학 중, 남한의 고모댁에서 거주(단독입국)

불특정 탈북청소년 : 탈북청소년 자원봉사자에 의해 기술된 적응경험사례
에 해당하는 불특정 탈북청소년

3) 자원봉사자 탈북가정방문 기록서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하나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보충 지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가정방문 기록서를 제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록서 중에서 연구를 위해 유의미한 기록서들을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분석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해 비교자료로 참고하였다.

3. 수집된 자료(transcripts)에 대한 코딩작업

아래에서 제시한 기록서는 탈북청소년의 인터뷰내용을 위시한 질적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표 1>의 예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면담내용 중 하나의 코드(범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왼쪽 편에 간략화하여 표시하였다. 여기서 코딩은 면담기록(interview transcripts) 내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정보의 단위를 찾아낸 것(유태균 역, 2001:150)이며 계속해서 발굴될 코드들과 연결을 맺어 공통적인 큰 범주로 묶이게 하거나 혹은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범주들의 연결 작업으로 하나의 큰 주제(theme)가 나타나고, 이러한 주제들을 축으로 탈북청소년의 적응 경험 및 행태의 잠정적인 유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른쪽 편에 기재된 연구자의 조사노트는 이러한 잠정적인 유형화를 완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면담내용 중에 다른 탈북청소년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 “같은 탈북청소년 사이의 관계”란 하나의 용어로 코드화하고 해당면담자의 대화중 이와 관계된 부분이 있는지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른 면담자의 대화 중에도 이와 관계된 부분을 찾아 공통되거나 차이점을 찾기도 하고, ‘시기별 탈북자 지원 정부정책의 변화’(왜냐하면 이전 탈북자들은 하나원이라는 적응교육시

설을 거치지 않아 하나원을 거친 사람들과 이질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 부모들의 태도’,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란 꼬리표를 하루라도 빨리 떼기 위해 같은 탈북자들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이전 선경험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간과한다는 점등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다른 코드(범주)들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최종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적응경험 혹은 부적응 유형으로 발전되어서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 행태에서 선입국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시행착오의 방지에 관한 지식과 혹은 그들이 이미 획득한 비공식적 사회 연결 망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완성되지 않는 연구의 결론이며 예시를 위해서 제시된 것이나 이러한 주제가 중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 여러 면담기록 등에서 지지된다면 선행연구자들이 간과한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면담내용이 매우 다양한 생활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면담자료의 분석시 1차적으로 그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시행하려 한다. 그 영역은 사회적응부분(친구사귀), 사회적응부분(가족관계), 문화 제도적인 면(의복, 소비생활 등 남한사회문화에의 적응), 학업이 이루어지는 장(학교, 학원 등), 심리적인 면(정체감, 불안감, 열등감, 대인기피 등 심리정서적 적응) 등이 되었다.

<표 1> 탈북청소년의 면담기록내용 분석의 예시

코드(범주)	면담내용	연구자의 notes
같은 탈북청소년 사이의 관계	R : 일원동에는 친구...없어? A : 북한애들 있는데...개네랑은 대면 안 해요. R : 왜? A : 모르드라구요.... R : 어떤 면을 모르는테??? A : 하나원에도 가지 않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 2,3년 된 애들이에요. R : 2~3년이면 너보다 남한에 있었던 시간도 훨씬 많고, 도움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개네 지금 뭐 하는데...학교 다닐꺼 아니야... A : 학교 다녀요. R : 학교 다니면...도움이 되진 않을까? A : <u>개네들한테 끌리지가 않아요</u> ...몰라요...개네들하고 너무 대 상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오히려 개네들이 한국 애들보다 더 재수 없어요. 잘난 척 하고...자기들이 선배라고...그...개네들이 엄파아빠가 우리 집에 올라와서 말하는거 보면...자기들밖에 없어요...완전히...하늘땅에...제가 볼때는요...하나원 거쳐서 안나온 사람들이 그런거 같아요. 오히려 하나원 거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살자구...노력하고, 좀 배운게 있으니까...아직도 일자리 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받아먹잖아요.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과 왕래가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케이스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청소년탈북자의 비행 사례	R : 오신지 한 2~3년 되셨는데도... A : 네.... R : 그런데...애들은 다룰 수도 있잖아...오히려 남한 애들보다 더 친해지고 싶지 않단 얘기야? A : 네. R : 음...의외네. A : 별루예요... 진짜 별루예요... 개네들...큰애는 20살 이구 둘째 17, 셋째 12이고... R : 너희 집 근처에 그런 집이 한집만 있어? A : 같은 아파트 살구요...그리고 옆에 남자 형제 둘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일지질러가지고 감옥에...있구... 형 혼자서 집 거두고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부모들의(성인들의) 집단적 대립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같은 탈북자 청소년들의 관계는 남한청소년들과의 교우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궁금함.
TV 시청 등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음	R : 어머니 입장에서 보시면...별로 안 친해졌으면 하시겠다. A : 지내는 와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친해라 그러는데...그런애들 싫어요. R : 그러면...아래 윗층 사람들과 왔다가 안하겠다. A : 네. R : <u>학원 끝나고, 동네에는 친구들 없는거지...아무래도 그렇다 보니</u> <u>간 집에서 텔레비 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싫지 않아?</u> A : 뭐가요? R : 나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놀면 좋잖아..아직 그럴 생각 없어? 음.... (내담자가 의자를 돌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것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을 던짐)	그러므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경험에서 하나의 중심주체로 또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짐.

R : 연구자 A : 탈북청소년

4. 탈북청소년 사회적응의 영역별 코드내용

이 연구에서 수집한 3가지 질적 자료(탈북청소년 면담기록서, 자원봉사자 전화면담과 기록서, 자원봉사자 가정방문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탈북청소년의 주요 적응경험의 영역별로 제시하면 각 영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표 2>을 참조하시오.

<표 2> 질적 자료에서 발췌된 영역별 범주(codes)

학업을 위한 장(場)에서의 적응 경험	1. 학업 성취영역	쉬운 과목: 수학, 사회, 도덕, 국어, 음악/힘든 과목: 역사, 사회, 영어, 도덕, 물상, 특수과목(실업계학교의 경우 PC관련 기술등)/학업에 대한 의도적 회피와 게으름/부모들의 비 적극적인 지도/구체적 전략적 학습법 없음/학업성취도와 사회 적응(친구 사귀 등)과의 관계/공부에 대한 스트레스/학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계획/몰지 쪽에 가까운 등수/남한학생의 60%따라감/검정고시에 떨어질 것을 걱정함/학교 가기 싫어함/학업 스트레스로 몸이 부름/부모의 지도가 소홀함
	2. 교사와의 관계	교사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겨줌/교사와의 신뢰가 형성됨/교사의 관심과 배려 존재/의식적이고 지나친 지원은 역효과-교우들의 시기/교사의 지지는 적응에 매우 긍정적/좋은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부족/탈북청소년은 평범한 존재로 대 해주기를 희망
	3. 진학결정 과정에서 의 문제	인문계와 실업계선택의 부정확성/진학 정보의 부족/대학특례 입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대학진학 희망/형사에 대한 원망/필요한 학업수준의 가늠을 못함/학교와 검정고시학원 선택의 혼란/아르바이트와 취업의 구분을 정확히 못함
	4. 비정규 교육기관에 서의 경험	검정고시학원/독학/교회내의 야학/학교보다 거친 환경/인간관계의 다양화/오락과 유흥문화의 경험가능성/부작용에 노출가능성/특기를 살리는 학원수강의 긍정성/자격증의 취득희망

사회적 관계형성 (친구사귀) 에 대한 경험	1. 탈북자라는 사실과 친구관계인식	또래의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무시/경시하는 태도/“왕따”될 까봐 쉽게 탈북자란 사실을 숨김/친구교제에 대한 두려움 때 문에 숨김/채팅으로 친교의 대리적 만족추구/지역사회에서의 친구관계형성 어려움/언어에서의 차이가 출신을 구별짓는데 기여/조롱과 낙인/출신을 당당히 밝힘/친구들이 출신에 대해 개의치 않음/생활보호대상자/북한출신을 신기해함/뽕쟁이라 고 놀림/한민족이란 생각으로 방어함
	2. 연하의 청소년과 동 급생이 되는 상황	원만한 관계를 형성/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놀리고 시비김/주 먹다툼/늙은 3학년새끼/자기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나이 많 아 재수 없다고 함/세살 차이 때문에 짜증나요/왕따 해도 6 학년으로 보내달라/어려도 같이 놀아야죠/지네들끼리 쏙덕속 덕/선생님은 가만있어요/자기 비하심/힘이라도 세어서 짱이 되어야지/여자애고 뭐고 때려 주겠다
	3. 용돈의 액수와 친구 사귀의 용이성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용돈이 도움됨
	4. 친구로 사귀 수 있는 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날나리 같은 애들이 많음/의리가 없음/남자답지 못함/짜가지 가 없음/임만 살았음/이기주의적/뱀맛이다/부정적 인식/불리 한 상황에서 사람을 이용함/경쟁적이다/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한다/버릇이 없다/여자가 남자영당을 친다/여학생들이 너 무 자유분방하다
	5. 같은 탈북자 친구와 의 관계	하나원동기와 친함/자원봉사자와 동절감/일반 탈북자친구와 는 긴밀하지 않음/같은 탈북청소년끼리의 소원함/하나원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의 갈등
	6. 청소년 하위(놀이)문 화와 적응경험	만화 오락가요 등에 관심 적음/부적응/놀이문화에 못끼는 것 이 아니라 안끼는 것/왕따당함/자존심 상함/공부부터 하고 놀이는 나중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외되지 않기 위 해 가식적인 호감심과 놀이적응을 표현함/채팅과 TV시청을 주로함.
사회적 관계형성 (친구관계) 에서의 경험 계속	7. 탈북자 지원 프로그 램의 낙인화와 청소년 탈북자 적응	생활보호적응의 부정적 낙인/무료급식의 회피
	8. 청소년의 내면적 특성	함경도 출신/관계형성의 어려움/사회적 불을 중요시 않은 성 향/사회성 약함/너와 나만 해결되면 된다/개방성이 없고 선 별적 인간관계형성/중국 체류시 경험이 개방하지 못하는 성 향 강화시킨

사회적 관계형성 (가족관계) 에 대한 경험	부모자녀관계	부모와 불화 없음/자신의 이미지관리위해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지 않음/자신의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 귀찮음/부모님께서 걱정할까봐/맹목적 순종/부모와 의복에 대한 견해 다름/대학진학의 강렬한 희망(부모)-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검정고시보다는 일반고교진학희망(부모)-검정고시선호(청소년)/부모의 갈등과 결손이 스트레스가중/사춘기대처/가부장적 권위와 남존여비가치 강함/아버지의 자녀구타
심리 정서적 측면		신체적 왜소함에서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헤어진 가족원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성공적 삶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요구로 인한 부담감/성취욕구와 새로운 삶(남한친구와의 사귄)에 대한 흥미가 갈등/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분노/정서적 불안정/외로움/열등의식과 자기비하/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음
기 타	1. 외모 및 외형적 측면에서의 적응 행태	외모의 큰 변화 없음/남한 청소년의 모습에 더 가깝다/요즘 유행하는 연예인의 머리 스타일/날라리 같음/
	2. 종교활동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청년부에 매우 친한 누나가 있다/성실한 교회출석
	3. 남한 성문화에 대한 인식	부정적/청소년들의 성담론에 끼지 않으려 함/북한에서의 성교육 부재
	4. 탈북청소년의 비행	검정고시 학원생의 교통사고 저지름/공부 안하고 땡땡이 침/

위 <표 2>에서 제시한 코드들은 탈북청소년 면접기록과 탈북자 대상 자원봉사자 전화면접기록을 기존의 자원봉사자 보고서내용에서 발췌되었으며 발췌된 코드들은 면담기록서(transcript)에서 나타난 탈북청소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연구자의 의역(paraphrasing)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코드들을 토대로 주제(themes)의 선정, 그리고 이 주제들을 기준으로 탈북청소년 적응의 문제를 묘사하였다.

IV. 분석결과 :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의 유형화

질적분석의 결과 아래에 제시된 몇 가지 주제들이 선정되었는바 이러한 주제들을 기준으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들을 묘사하기로 하겠다.

1. 학업부문에서의 부진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탈북 청소년의 학업에서의 상황은 부진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별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교과목에 따라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재학하고 있는지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지 상관없이 자신과 경쟁이 되는 남한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로 보인다. 연령별로 비교해보자면 저연령 탈북청소년들보다는 (주로 초등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고연령 탈북청소년(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교육기관, 혹은 독학 등)의 경우가 학업성취도에서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학교선생님들로부터 ‘너 바보 아니냐?’ 혹은 자원봉사대학생들이 ‘바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학습부진을 경험하는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학업부진은 대개 심리적, 육체적 측면에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많은 경우가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어떤 어린 탈북여학생은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란 심적 부담으로 육체적인 비만까지 생기는 정도였다. 또한 북한에 있을 때의 학습능력에 있어서의 자만의 모습과 남한에 와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짐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학습의 부진은 심각한 경우 학교생활적응과 교우와의 관계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단서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학습의 부진이 교우와의 관계를 협소하게 만들거나 고립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탈북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가 성적이 낮은 학급 교우들과의 친교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들은 학업에서의 부진과 이로 인한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못하고 있었다.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하면 된다’는 다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학업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탈북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나 약한 의지 때문일 수도 있고 교사와 부모들의 비적극적인 지도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현재로서는 학업격차의 보완책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처럼 초등생자녀를 방과후에 다양한 학원을 보내는 만큼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발견되지만 실제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학습지도를 하는 것은 남한의 학교교육내용과 수준이 북한에서와 차이가 있어 힘들다.

고연령 청소년일수록 정규교육기관에 들어가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검정고시나 독학을 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리고 교회의 야학 같은 곳인 학교, 학원, 검정고시학원, 자원봉사학습지도 외의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자원임을 알게 한다.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는 “진도가 매우 빠르다”는 조사대상의 언급으로 판단하건대 자원봉사자의 학습지도는 탈북자 학생의 능력과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교사(학원강사 포함)와의 관계

전체적인 묘사를 하려면 교사와 탈북청소년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담임하는 반에 탈북청소년이 있다는 사실로 의도적인 배려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본인이나 가족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고 또 이를 비밀로 지켜주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이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사와 자신사이의 하나의 신뢰적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지지적 태도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이 학업의 장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정체감을 정립해가며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교사의 배려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초등생과 중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지나치거나 무분별한 지원은 탈북청소년의 동료들로 하여금 시기, 거부를 불러와 오히려 적응과정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탈

북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이기보다는 평범한 존재’이고 싶어한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배려와 지지에 대하여 성숙한 판단이 부족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탈북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다. ‘무조건 좋다는 선생이 가장 좋다’는 한 탈북청소년의 말은 남한사회의 기준으로 올바른 선생님 상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진학 및 진로설정에 대한 비 구체성

탈북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 사항은 단기적으로 진학과 진로설정에 있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 때문에 학업에 무계획적이란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혹은 좋은 직장을 잡거나 사업을 할거라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졸업할 수준이 되는지, 또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서둘러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이나 민간자원봉사 등에 의해서 진로설정에 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한 남학생의 경우 담당형사의 조언을 따라 실업계학교를 진학하고 나서야 실업계학교의 목적은 인문계학교와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후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업고교의 선택을 안내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 이러한 진학과정에서의 선택의 실패는 청소년의 앞으로의 남한사회적응과 미래생활상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대학입학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입학에 있어서의 약간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대부분 특례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적 대학입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진학과 진로설정에 대한 비구체적인 준비로 이어지거나 맹목적으로 대학교육을 선택하게

하여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수업을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는 탈북자 학생의 비율은 매우 낮다.

진로선택의 고민은 고연령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생들은 나이차이가 있어도 자신보다 어린 남한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에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은 남한학생과의 학력의 격차를 정규교육과정에서 해소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교우관계형성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단기간에 원하는 교육과정을 마쳐 학력을 인정받는 검정고시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진로설정 지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고연령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취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취업과 진학에 대한 뚜렷한 선택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4.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인간관계형성의 문제점

학교이외의 장(場)에서의 적응은 학교와는 다른 환경적 문제를 제기한다. 탈북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입학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검정고시 학원과 같은 비정규교육기관을 찾고 있지만 학교 외의 이러한 비정규교육기관은 성격상 탈북청소년들을 비교적 거친 사회환경에 부딪히게 함으로서 학교와는 또 다른 적응의 난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는 달리 구성원들은 연령, 성별, 삶의 배경 등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학업의 이수과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학습환경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성별과 연령 그리고 배경 등을 초월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서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위험성도 엿보인다. 사례들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학교와 비교하여 보다 비보호적이고 비관용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탈북청소년의 정체감을 혼란케하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어떤 사례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로 공부보다는 노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즉, 학

업성취에 도움을 줄 검정고시학원은 오락과 유흥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장이 되고 있어, 탈북청소년이 검정고시학원을 학업성취의 수단으로 택할 경우 적지 않은 위험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어떤 경우는 학원내에서의 남한학생과의 갈등이 첨예화 되는데도 이를 통제하거나 지도할 인적요소가 적절히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계형성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이기도 한다.

5. 친구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

1)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과 교우(친구)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중의 하나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탈북학생이란 사실을 알고서 말투가 이상하다거나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거나 것으로 놀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 탈북청소년 D의 경우,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학급뿐 아니라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D의 경우 주변에서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바르게 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며 모범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다. 많은 경우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매우 꺼려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나 다른 교사들에 의해서 탈북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비밀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나 탈북자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 E의 경우는 자신이 탈북자란 사실에 개의치 않고 당당히 밝혔으며, 그 후로도 이러한 탈북출신이란 사실이 관계형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 사실 때문에 소외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경우이다. 다만 신기해 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대상자란 불명예 딱지를 달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

년은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기 때문에 급식을 공짜로 먹는다는 사실에 대해 친구들이 알고 무시할까봐 매우 염려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닌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차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주한 경우에 지원하는 정부프로그램이 지니는 부정적 낙인(stigma)으로 말미암아 친구와의 관계형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엿보게 된다. 저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꼬리표에 대하여 놀리는 것에 대응하여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의 대응기제를 가지지만 그러한 기제가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2) 연하의 청소년과 동급생이 되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조건이 연하의 학생들과 동급생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다. 탈북청소년 D의 경우는 연하의 동급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된 상황이 유발한 극단적 부정적 사례였다. 학교내의 불량학생들에 의해서 탈북청소년의 ‘나이 많음’은 ‘늙은 3학년 새끼’로 불리울 만큼 극단적 형태로 놀림을 받게 되고, 이러한 놀림은 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탈북청소년과 다투었던 학생들간의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탈북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이가 어린 남한학생들이 해내는 학업수준에도 미달하는 자신을 발견케 하여, 자신감이 극도로 결여되고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나는 바보, 병신이다’라고 토로할 만큼 자신을 비하시키기에 이른다. 자신감 상실과 자기비하는 남한사회에서 친구관계를 경직시키고 교사에게 반항하는 등의 사회적 관계에 부적응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털어 내기 위해 부정적인 대안을 추구하기도 한다. 즉, 공부를 못하더라도 힘이라도 세면 ‘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힘을 길러 누구든지 자기를 무시하면 ‘여자애고 뭐고 모두 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저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실제 연령은 6학년에 해당하는데 동급생인 3학년 아이들과의 나이차이 때문에 ‘짜증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학급학생들과 놀지 않고 자기연령에 비슷한 고학년(5-6학년들)과 사귀고 있다. 한편, 남한아이들은 그들대로 ‘나이 많은’ 탈북자 동급생을 배제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결국 탈북청소년과 이들의 부모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을 못 따라 가는 한’이 있어도 또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제 나이에 맞는 학년선택을 희망하여 학교로부터 학년 재조정을 허락 받기도 한다. 저학년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탈북청소년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중에는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클럽에 가입되어 취미나 특기, 공통점을 가지는 학생들끼리의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교우관계를 어렵지 않게 만들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3) 남한 청소년 혹은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북청소년에게 “남한 학생들이 어떤가?” 혹은 “남한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을 경우 많은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부정적인 인식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처음 남한에 와서 친구가 없을 때 친구 되어준 남한청소년에게 평생 잊지 않을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한에 온지 2-3개월 되는 탈북청소년의 경우에서도 또 2년이 넘는 경우에서도 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제기된다.

‘의리가 없고 남자답지 못하다’, ‘짜가지가 없고 입만 살았다’, ‘기집애들 같다’, ‘불리한 상황에서는 사람을 이용한다’, ‘밥맛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일 밖에 모른다’, ‘경쟁적이고 남에 일에는 신경 안쓴다’, ‘끝없이 올라가려고만 한다’, ‘버릇이 없다’, ‘여자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남자에게 막 대한다’, ‘나가 노는 것이 틀린다’ 등이 그 부정적 인식의 구체적 표현들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탈북청소년들 나름대로의 특정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탈북청소년

들만의 인식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부모, 형제 등을 포함하는 탈북자 성인들의 남한주민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신의를 잘 저버리며 돈에 좌우된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인식이 탈북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남한청소년들은 ‘의리가 없다’식의 부정적 인식이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남한청소년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제한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장애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적응초기에 경험하는 친구관계형성에서의 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을 배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남한사회 관계형성과 남한청소년문화에의 편입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욕구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아이들은 “날나리 같은 애들이 많아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은 탈북청소년들이 종종 언급하는 묘사인데 단순히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라기 보다는 탈북청소년 자신들과 남한청소년들의 차이를 본인 스스로 뚜렷히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남한청소년들의 차림새와 행태를 경원시하면서도 선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동일시하기에는 문화적 장애들이 많다고 느끼는, 그러한 미묘한 심리적 갈등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예로서 탈북청소년 E는 자기또래의 남한 청소년은 ‘모두 밥맛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있어 남한아이들은 ‘친구할 대상이 못된다’. 그런데 탈북청소년 E는 16세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청소년의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을 남한청소년들과의 부정적 경험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 것 이외의 다른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탈북청소년 E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환경(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도 자기보다 나이가 2-3세 많은 여대생이라고 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제와 인간

관계형성과정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대학생집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동기에서 자기또래의 남한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경원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이 보이는 남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간관은 자신의 사회적응 환경이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적응욕구의 역설적 표현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형성, 특히 친구관계형성에 미온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란 추정을 하기는 어렵다.

한편, 북한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문화적 속성을 남한보다 더 온전히 보존했다는 설명(한성열, 2000)에 근거한다면 탈북청소년들이 여학생이 남한생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나 탈북청소년 N의 경우처럼 여학생들의 음주와 자유로운 언행에 의외라고 생각한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 남한 청소년 놀이문화와의 괴리

탈북청소년들은 학업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도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컴퓨터게임, 만화, 연예인들에 관한 지식, 유행하는 대중문화(춤과 노래)에 관한 몰입 등이 정착초기단계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낯선 풍경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이런 문화에 친근해지더라도 남한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놀이문화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놀이문화를 매개로 한 모임 속에서 괴리를 발생시켜 탈북청소년들에게 소외감, 열등감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심적인 부담이나 어쩔 수 없는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남한청소년들에게 유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런 상황을 친구들에게 내색하거나 털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서 이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남한청소년들과의 놀이문화에서의 괴리는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게 만들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한다. 그래서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채팅 등 사람들과의 대인 접촉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놀이로 보내게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남한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가담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태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 D의 경우에서처럼, 학급친구들과 의도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남한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대중가요와 연예인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척하는 것과 같은 가식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학급동료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학습능력격차의 해소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은 남한청소년들과 섞여 자연스럽게 놀이문화에 편입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는 하나의 주요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남한청소년 놀이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하나의 방어기제가 된다는 것이 발견된다. 그리고 또한 공부를 해야한다는 의무감은 탈북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업부담에서 먼저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 놀이문화에도 가담하여 남한청소년들과의 어울림에서도 소외되지 않겠다는 단순하지만 나름대로의 자신의 남한사회적응 기획을 가지게도 한다.

수집된 질적 자료들에서는 이러한 괴리가 초기적인 단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아마 적응과정의 대개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적어도 정착 초기시기동안 열등감, 소외감, 배제된 느낌들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과정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5)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탈북청소년의 내면적 특성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증언으로 제시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탈북청소년의 내면적 특성과 배경은 자못 흥미롭다. 이 증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탈북청소년들은 근본적으로 남한에서 친구 사귀고 같은 사회적 관계형성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오기 전 중국에서도 잘 안되었다고 보며 북한청소년끼리도 관계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들을 정리하면 첫째, 탈북자들은 함경도 출신이 많은데 이 지역은 북한사회에서도 제도적 영향력이 제일 미치지 못하는 곳으

로서 원래 사회적 규칙(rule)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처리가 ‘너하고 나 사이에서만 해결 되면 된다’는 식으로 미시적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법규준수나 사회성은 약하다고 한다. 탈북청소년들도 부모들로부터의 사회화나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남한에 와서도 사회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성이 매우 낮고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선별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부모에도 숨기고 잘 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경찰인 공안에 항상 쫓기는 생활과 체포와 송환에 대한 불안감이 타인에게 자신을 잘 개방하지 않은 내면적 특성을 더욱 조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탈북청소년들끼리도 터놓은 아이들에게만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남한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비개방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재네들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들은 경험이 풍부한 한 자원봉사자의 증언에 근거한 만큼 일반화되기는 어려우나(이 연구는 질적 연구이므로 처음부터 일반화를 목적하지 않지만)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출신 지역적 성향과 중국 등의 제 3국 체류경험이 이들의 남한사회적응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보임에는 틀림없다.

6. 탈북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탈북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심각한 갈등이나 반항 등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의 이주민들의 경우에서 보인 역할 갈등이나 역할전도현상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만한 근거는 제법 존재한다고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탈북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남한의 부모-자녀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들도 함께 포함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에 응하기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자녀들의 옷 입는 것에서부터 청소년 자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공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등은 탈북자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자녀사이의 일반적인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부모-자녀사이의 갈등근거들이 탈북자가정 내에서는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에서 일상적인 세대차이로 해석되는 청소년들의 자유분방한 가치와 개인주의적 행태가 탈북청소년에게 해당할 때 그들의 부모는 “중국에 있을 때 보다 버릇이 나빠졌다” 라든지 “남한아이들 하는 [좋지 않은] 짓을 따라한다”고 생각하면서 비교적 관점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려 할 것인데 반하여 그들의 자녀들은 힙합 스타일을 복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는 부모들을 자기보다 남한사회의 문화에 덜 적응한 사람들로써 폄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상하건대 이러한 사회적응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에 뒤떨어지는 존재로 인식될 때는 부모들에 대한 존경이나 순종하는 마음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질적자료의 내용에 근거하면 탈북자 가족 내에서는 가부장적 권위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복종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우리들을 “목숨을 걸고 나를 데려오셨다”는 생각이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권위나 남한으로 데려온 부모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남한의 가치와 규범에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자 가족 내에서 가장이나 가장의 배우자가 취업이나 창업 등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런 경우 부모의 권위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자 부모가 남한의 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과거사(過去事)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부모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커졌다는 탈북청소년의 경험이 보고되기도 한다(이기영, 2000).

한편, 탈북청소년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1년 미만의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문화에 노출된 후 발생하는 외모치장과 진로선택에서의 갈등은 부모와 상의하는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는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학교와 집밖의 일을 집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며, 부모와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7. 적응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천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살면서 가지는 적응스트레스의 출처는 앞서 언급된 것들 외에도 다양하다. 탈북청소년들은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등으로 대체로 남한청소년들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왜소한데 이러한 왜소함에서 오는 위축감과 열등감이 있고, 탈북시 헤어진 가족원(부, 모, 형제, 자매 등)이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음으로서 이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다. 한편, 부모들로부터 전이되는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부담이 느껴지는 동시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다'고 말한 것처럼 상반되는 생활경험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정서적 불안정과 외로움, 그리고 특정한 대상이 없는 분노감, 북한생활에 대한 그리움 등이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

V. 결론 및 실천적 함의

이 연구는 기존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분야인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하여 질적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경험을 가능한 여과 없이 제시하려 했다.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사례수는 크게 많지 않지만 수집가능한 질적자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탈북청소년 당사자들과의 면담기록 이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와의 심층전화면담, 그리고 기존의 자원봉사자 기록, 선행연구의 질적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자료들 속에서 주요 코드들을 선별하고 그 코드들을 주요 중심주제아래 연결해 보면서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경험을 묘사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묘사는 그들의 적응경험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하기 위하여 학업부진과 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형성, 진학 및 진로설정에서의 문제점,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형성의 어려움, 부모와의 관계, 기타 적응스트레스의 원인 등의 주제들을 중심

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친구관계형성의 어려움이란 주제에서는 하위 주제들을 분류하여 탈북자란 낙인으로 인한 친구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 연하의 청소년과 동급생이 되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남한 청소년 대한 부정적 인식, 남한 청소년 놀이문화와의 괴리,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탈북청소년의 내면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제 혹은 하위주제에서 묘사된 탈북청소년의 적응이야기를 결론부에서 다시 요약하지는 않으려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응 경험은 간결히 요약하기 쉽지 않을 만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요약으로 인한 질적 탐구의 결과가 변모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가하면서 연구자의 생각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포용의 연습을 충분히 해오지 않은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란 흥미로운 이질적 존재로 부각되어 이러한 존재적 의미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입장에서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적응 메카니즘을 터득하는 것은 단기적⁷⁾으로 여전히 힘든과제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인식과 행동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여진다. 이들의 적응과정을 적절히 안내하고 지원하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응상의 혼란은 남한사회내 탈북청소년들의 양면적 태도와 정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친구관계 혹은 교우관계 형성과정에서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남한 청소년에 문화에 다가서려는 강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 탈북자란 사실을 밝히기 두려워하면서도 ‘한 민족’ 정서를 방패삼아 자기강화를 하고 있는 것,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욕구와 부모로부터의 성공요구 메시지 가운데서도 실제 적응노력은 그만큼 하지 않은 것, 탈북자에게 주어진 지원제도를 달가와 하지 않으면서도 무의식중에 특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생사를 가르며 탈북해 온 부모에 대한 보답의 의무를 느끼면서

7) 명확한 시기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5년 미만의 남한생활자들이므로 이 연구에서의 ‘단기적’이란 개념은 입국후 5년이하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도 부모에 대한 기대와 존경의 감소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 학업을 열심히 해야 남한학생들과 대등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노는 것’이라도 잘해서 이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하는 것, 나이 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동급생들과 같이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업을 못 따라가도 월반을 해야 하는지, 혹은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등의 생각과 감정들이 이중적으로 교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탈북청소년의 적응경험에 대한 기초적 묘사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경험상의 유형분류가 더욱 뚜렷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질적 탐구결과를 기반으로 가설이 형성되며 연구방법론의 다른 한 축인 양적 조사로 일반화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양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질적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탈북청소년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정책적이고 사회복지 실천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가능한 대응방안들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학습부진을 극복하게 할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학습부진의 부진을 극복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나 남한학생들과의 능력 차를 가능한 좁혀서 학업부진의 부진이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탈북청소년의 학습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증가하는 탈북아동 및 청소년의 추세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회적응교육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대안교실들이 2000년경부터 민간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교사 및 상담교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탈북자라는 사실로 인한 친구들로부터의 소외의 두려움과 동료와의 실제적인 갈등, 연하의 청소년들과 동급생을 이루는 상황에서 오는 부적응의 모습들, 그리고 이와 함께 탈북청소년들과 교사와의 관계정립도 매우 중요한 영역들인데 이러한 학업의 장에서의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적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내의 담당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학교에 탈북청소년이 입학할 경우, 정부의 담당부처에서 해당 학생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학생과 연결된 정부의 행정시스템⁸⁾을 담당교사와 공식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와 정부부처 이외에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탈북자의 적응문제와 마찬가지로 탈북청소년의 적응의 문제 또한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서 정부나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의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듯이 문제 대응책 또한 다중적인 것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민간자원이 동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조사의 결과로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요소들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부모교육 프로그램, 탈북자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청소년 하위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남한청소년과의 결연과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남북통합교실, 멘토링, 홈스테이 등),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프로그램(주로 자원봉사자가 지원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등이 된다.

이러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수행하거나 제공할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도움될 수 있는 민간기관들은 탈북가족 및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교회 및 종교기관 등이 될 수 있고 지역성을 초월해서는 기존의 청소년문제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상담기관과 청소년 문제관련 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기관들을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조직하는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와 조직화에는 정부의 전문실

8) 탈북자가 거주하는 지역별로 거주지 보호담당관(행정공무원),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취업보호담당관(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실무자)등이 배정되어 있다.

무자와 전문학자들의 현실적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민간기관실무자들의 사전 준비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진학 및 진로를 지도할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이 그 정착과정을 돕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학교결정 등에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신변보호담당관인 형사가 이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탈북청소년 거주지역해당 교육청의 인력 중 1인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취업보호담당관과의 협조하에 탈북청소년의 학교진학, 진로선택,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지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는 학교, 검정고시학원, 일반학원, 아르바이트관련 구인시스템, 자원봉사자 대학생 등을 탈북청소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진로안내 및 형성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인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 김엘리(1999),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독고순(1999),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 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북한인권시민연합(2000), 탈북자를 위한 1:1 가이드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세미나 녹취자료(비간행물).
- 북한인권시민연합(2000-2001),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단 가 정방문 기록서(비간행물).
- 오혜정(1995), 북한귀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

-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유태균(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윤덕룡·강태규(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심포지움 발표문.
- 윤여상(1994), 북한귀순동포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윤인진(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탈북동포이해 기본교재, 북한이탈주민후원회편.
- 이기영(2000), “하나원에서의 탈북청소년교육생 사회적응력제고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보고서.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기영(2001), “북한출신 남한주민의 사회적응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1년 한국 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pp.125-146.
- 이기영·성향숙(2001),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제 47호(2001 겨울), pp.243-271.
- 이소래(1996),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창호(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 사회사업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2000), “제 3장 탈북 아동·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오름. pp. 110-130.
- 전우택·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2,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유선(1998), 귀순자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좋은 벗들(1999a).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비간행물).
- 좋은 벗들(1999b). “국경도시의 아이들” 1999년 3월 국경지역 난민보고서(비간행물).

-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서(비간행물).
- Almqvist, K., Brandell-Forsberg, M.(1995), "Iranian Refugee Children in Sweden: Effects of Organized Violence and Forced Migration on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 Orthopsychiat.* 65 (2).
- Eisikovits, R.A.(2000), "Gender Differences In Crosscultural Adaptation Styles Of Immigrant Youths From The Former U.S.S.R. In Israel." *Youth & Society* 31(3): 310-331.
- Glaser, B.G. &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Aldine.
- Goldberg, E. R. (1980), "Relocation and the family: A crisi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G.V. Coehlo and P. I. Ahmed (Eds.), *Uprooting and development: Dilemmas of coping with modernization* : 211-231
- Grove, C. L. & Torbiom, I.(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 205-233.
- Haines, D., Rutherford, D. and Thomas, P.(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310-319.
- Lee, E.(1988), "Cultural factors in working with Southeast Asian refuge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11: 167-179.
- Nguyen, S. D.(1982),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ntal health need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awa*, 7(1): 26-35.
- Padgett, D.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 Rubin, A & Babbie, E (1997),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rooks/Cole.
- Williams, Carolyn L. and Berry, J. W.(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Lee, Ki-yo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NK) refugee adolescents to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Under a lack of knowledge about NK refugee adolescents' experiences in the South, it seems to be more desirable to have a thick description than to design a quantitative research in acquir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ir experience. Qualitativ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en in-depth interviews with NK refugee adolescents in the South aged 13 to 21, five telephone interviews with volunteers who have worked with NK refugee adolescents, the volunteers' periodical records during the years of 2000 and 2001, and qualitative data already analyzed in prior studies.

A typical analysis method for qualitative data, 'open coding-constant comparative analysis-themes'(Glaser & Strauss, 1967), was applied

* This study was granted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2001).

I thank Ji-young Park for her collecting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making transcripts.

** Assistant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for this study. As results of the analysis scheme, NK refugee adolescents' adaptation story was described under the following themes: relationship between low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difficulties in social adaption, relationship formation with teachers (including private institution's lecturers), confusion and ignorance in educational and job career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experienced i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difficulty in making a friendship,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and other stressful situations.

Several coping strategies with the difficulties of NK refugee adolescents' adaption are also suggested as follows: educational assistance for mitigating the gap in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NK refugee adolescents and their counterparts, reinforcement of teachers' monitoring and counseling roles, development of adaptation assistance programs by NGOs or welfare centers within a community, and selection of officers who will be in charge of education and job career guide and who will work with other service providers in partnership.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Adolescents, Migrants,
Social Adaptation, Qualitative Study